

“만해 스님의 유훈 잊지 않겠습니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기념 행사 ‘다채’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을 맞아 남부 불교도가 하나돼 추모 다채를 개최하는 등 스님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봉행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주본)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불자50여명(남측 30명, 북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제’를 열었다.

민주본 본부장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만해 스님이 활발히 왕래한 남북의 길이 다시 이어져 복원되길 바란다”면서 “만해 스님의 정신과 업적을 남북이 함께 조명하고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리구룡 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자주 정신으로 일관한 스님의 한생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전체 불교도들은 만해스님의 정신으로 이 땅에 지상정도를 하루 빨리 이루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재)선학원(이사장 법진)과 국가보훈처는 6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70주기 추모제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만해 스님은 68년의 짧은 삶을 살면서 선지(禪指)를 깨달은 선사로서 방대한 경전

을 정리한 교학자로서 죽는 날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로서 누구보다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면서 “스님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바른 삶을 열어주는 보살로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믿고 해방과 독립이라는 정도의 언덕을 향해 고해를 건너는 나뭇배로서 한 평생을 살았던 우리의 스승이었다”고 찬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직접 작사하고 김시을 국악인이 작곡

민주본·조불련 신계사서

사상 최초 합동 추모다례

선학원, 열반 70주년 추모제

창작 추모곡 ‘넘이시여’ 발표

심우장 시대 조명 학술세미나도

한 창작 추모곡 ‘넘이시여’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넘이시여’는 정준태 극단 배우 루 대표가 노래했고 관현악단의 반주와 솔중창단, 앙상블 시나위, 아산 영상 합창단 등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만해 스님의 마지막 거처인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는 열반 7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제가 열렸으며 하루 전인 6월 28일에는 추모예술행사가 진행됐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심우장에 머물던 시기를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도 열렸다. 성북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6월 29일 오후 2시 신계사 대웅전에서 불자 50여명(남측 30명, 북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제’를 봉행했다. 사진=조계종 제공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6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기념 추모제에서 만해 스님 영정에 헌향하고 있다.



선학원이 주최한 추모제에서는 법진 스님이 직접 작사하고 김시을 국악인이 작곡한 창작 추모곡 ‘넘이시여’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문화원(원장 조태권)이 6월 28일 동방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서 백원기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만해 만년의 심우장 시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며 학계의 연구활동을 당부했다.

백 교수는 “심우장은 민족자존의 역사적 공간으로 심우장 시대의 핵심은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플 수밖에 없는 만해의 ‘동

체대비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또 “만해 스님은 시장르로는 해소되지 않는 독립정신 고취와 사회계몽 발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소설로도 사상을 퍼냈다”며 “심우장 시대 문학활동은 일제 저항의식과 독립운동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재추진된다

30일 추진위 사무실 현판식... 2016년 가을 목표

7월 5일 조계사에서 추진회 발대식

1년간 여론수렴 후 정부 공식 요청

“미움과 분노가 팽창돼 있는 지금 이곳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방한한다면 이 시대 최고의 불사가 될 것입니다.”

한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세계적 스승 달라이라마가 이번에는 방한할 수 있을까.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회(위원장 금강)가 서울 경운동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고 6월 30일 발족했다. 7월 5일에는 조계사에서 추진회 발대식과 선포식도 열렸다.

추진회는 미항사 금강 스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집행위원장을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준비위원에는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진

옥 스님(여수 석천사),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 목종 스님(부산 대광명사), 일진 스님(청도 운문사), 정목 스님(서울 정각사), 남카 스님(티벳하 우스크리아) 등 22명으로 참여한다.

뒤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진회는 2016년 가을을 목표로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사회적 대립과 분열을 겪는 한국 사회에 생명존중과 평화적 공존 메시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회는 이를 위해 지역별회와 1천만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론결집 후 정부 측에 의견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는 한국 입국 허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는 6월 30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회 위원장 금강 스님은 “이전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막힌 면이 많았다”며 국민 다수의 의견이 여론으로 수렴된다면 방한 성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년동안 장기 계획을 갖고 충분히 준비해 접근한다면 어떻게든 방한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비쳤다.

추진위는 우선적으로 생명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지역 순회 대담회를 해나갈 예

정이다. 이후 9월 말까지 추진일정 및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식 발족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이라마 방한은 2016년 9~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7월안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홍보 동영상, 초청 취지문, 서명지를 다운로드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나란다 축제, 조계종단 행사로 승격

포교원·은정진흥원 요강 발표... 31일까지 접수

국내 최대 불교 교리 경시대회인 ‘나란다 축제’가 조계종의 종단 행사로 진화한다. 또한 올해는 경찰대 학생들과 일반인 및 외국인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며,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회향한마당도 마련된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제6회 나란다축제’ 모집 요강을 7월 2일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나란다 축제’는 9월 20·21·24일 3일간 서울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군법당 등지에서 개최된다.

‘제6회 나란다축제’는 기존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 불교문화 체험마당 등에 ‘회향한마당’과 ‘나란다 덴스경연대회’ 등이 추가 개설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찰대 학생들이 사관생도(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공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삼사관학교) 부문에 참가하게 된다.

올해 나란다축제에는 중·고등부와 일반반부의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고등부는 학교, 사찰 등 단체별 예선 통과자가 참여한 결선이 펼쳐진다. 결선은 9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에서 경시대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

중·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초·중등부 200만원, 고등부 300만원)이 수여된다.

일반부는 팀별 참가자격 제한을 풀고, 개인별 참가로 전환된다. 참가기준이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확대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외국인들의 참여도 대폭 확대돼 외국인 부문 퀴즈대회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확대 실시된다.

신설된 회향한마당에서는 초등부, 일반부, 외국인, 덴스경연대회 등 부분별 진행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공연, 참가자 전원이 함께 어우러져 연출하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9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체육관에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가 진행된다. 초등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예선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관생도·경찰대생 부문은 9월 2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당 사관학교와 경찰대 법당에서 진행되며,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생 등 1천1백여명이 참가한다. 부분별 참가접수는 7월 7일부터 31일까지이다. www.buddhism.or.kr / www.eunjung.or.kr 이나은 기자

백악관 셰프·뉴욕커, 사찰음식에 빠지다

샘 카스 사찰음식 체험·뉴욕서는 ‘사찰음식의 날’ 호평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샘 카스 백악관 셰프부터 세계 경제 중심지 뉴욕의 뉴욕커까지 한국 사찰음식 매력에 흠뻑 빠졌다.

7월 2일 서울 진관사를 찾은 샘 카스 셰프는 사찰의 여름법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샘 카스 셰프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진관사 계호 스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법식인 풍곡수와 오이물김치를 만들며, 생소한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

지 못했다. 이후 진관사 사찰음식 기본 강좌의 주메뉴인 버섯감정, 된장빻빻이장, 시래기찌개 등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사찰음식을 맛보고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사찰음식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국 뉴욕 일원에서 뉴욕 한국문화원,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제3회 뉴욕 한국사찰음식의 날’을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샘 카스 백악관 셰프는 7월 2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샘 카스 셰프는 직접 사찰음식을 만든 후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사찰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 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 종 정
총무원장: 혜인 사서실장: 대산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총무부장: 전산
재무부장: 해인
교무부장: 해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은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해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대산
편집기자: 이기영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장: 이근진 사회국장: 법산
유현석

이사: 혜인, 정산, 보은,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원 로 원: 성민, 해일, 춘담, 혜정, 일봉, 혜경, 천불, 백공, 혜원

방 장: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수원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총무원장: 상산	충북총무원장: 학산	전북총무원장: 범성
경기총무원장: 도불	충남총무원장: 백산 지경	제주총무원장: 청호
경기서부총무원장: 자명	경남남부총무원장: 천산	울산총무원장: 범철
경기남부총무원장: 해인	경남서부총무원장: 지명	일본동경총무원장: 정대
인천총무원장: 해원	경남총무원장: 지원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강원총무원장: 광덕	경북총무원장: 덕운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충남총무원장: 혜덕	부산총무원장: 서봉금산	중국청도총무원장: 증산청목
	부산북구총무원장: 수산	
	전남총무원장: 도명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원총무원장: 상산	총무: 정해
부회장: 해월, 해산, 월산	부회장: 정해
재무: 도은, 향인	재무: 도은, 향인
교무: 현타, 수정	교무: 현타, 수정
교육: 법신, 성담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보현	문화: 남산, 보현
포교: 보명, 흥산	포교: 보명, 흥산
강원: 덕산, 화광	강원: 덕산, 화광
감찰: 금산, 보현	감찰: 금산, 보현
불화: 해담, 인산, 진화	불화: 해담, 인산, 진화
의식: 련성, 지해, 수옥	의식: 련성, 지해, 수옥

■ 총 립
서울총림 혜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주조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불교조계종대학원
학 장: 해일 부학장: 일봉
교 수: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근, 김수정, 김동근

조 교: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정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산,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학원
원 장: 혜인
교 수: 상산, 정수, 송양, 성민
운영이사: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해법, 성공, 수원, 법우, 해현, 지은,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승,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욱

■ 중국남경종의학대학
총 장: 오민화 부 학 장: 정오 남산
한국총장: 손혜인 중국총학교장: 손영진
학생처장: 손영진 조 교: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과과장: 이안산
운영이사: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7
일간불교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 (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종의학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